

시내버스 준공영제 15년째 시민 혈세 ‘줄줄’

광주시 재정 지원, 2007년 196억→2020년 1천193억 폭증
인건비 상승, 코로나19 여파 승객 감소 운송수입 줄어든 탓
울산, 신안 일부 민영화...시, 직영제 도입엔 비용 이유 난색

광주 시내버스 요금 등 운영 체계 공익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내버스 운송 수입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광주시의 재정 지원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만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지 않으면서 ‘준공영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 지원 금액은 1천193억원으로 운송 원가(2천86억원)의 57.2%를 차지했다. 이는 역대 최고 재정 지원금이다.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난 2006년 12월 21일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재정 지원금은 모두 6천741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07년 196억원(14.4%) ▲2010년 352억원(23.3%) ▲2013년 395억원(23.2%) ▲2016년 508억원(28.0%) ▲2019년 739억원(36.3%) 등이다.
준공영제 운영 조례를 통해 버스 운행과 차량·노무 관리는 10개(101개 노선, 999대) 버스 회사가 맡고, 의사 결정 및 책임은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돼 있는데, 한마디로 버스 회사의 수익금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매년 운송 원가는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수입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승객 수가 줄고 운송 수입도 급감하면서 시의 재정 지원금은 급증하고 있다.
연도별 승객 수는 ▲2007년 1억5천540만여명 ▲2010년 1억6천140만여명 ▲2013년 1억5천300만여명 ▲2016년 1억4천60만여명 ▲2019년 1억2천670만여명 ▲2020년 8천510만여명 등이다.
시가 준공영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승객 수가 1억 명 미만으로 감소한 것인데, 향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재정 지원

규모는 이 보다 더 늘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운송 원가 상승과 주 52시간 근로 시간 상한제 도입, 승객 수 감소 등에 따라 매년 적자 폭이 커지고 시민들의 부담만 가중되면서 준공영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시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재정도 악화하는데도, 각 버스 업체는 운송 서비스 개선 등 준공영제 도입 취지인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준공영제 문제점에 대한 의견에

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직영제 도입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직영제 전환 땀 부지 확보와 운송업체 매입 등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탓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직영제의 경우 비용이 더 들어가게 돼 현실성이 떨어진다. 울산시와 전남 신안, 경기도 화성 등 일부 노선에 대한 직영제는 지역 특수성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일상에 받아들여지며, 점차 승객 수가 회복되고 있어 지원 비율은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승지기자



작업중인 학생 격려 13일 광주를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호남대학교 미래자동차 상상공작소를 찾아 실험실습을 참관하며 작업중인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김애리 기자

다가오는 ‘일상 회복’...광주·전남 산발적 감염

방역당국 “언제든 확산 불씨 살아날 수 있어” 촉각

내달 초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광주·전남에 학교와 직장 등 일상 속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6면
13일 광주·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광주(8명)·전남(9명)에서 모두 1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 신규 확진자는 ▲광산구 소재 건설 현장 관련 1명 ▲타 시·도 확진자 관련 1명 ▲타지역 건설현장 관련 1명 ▲기확진자

관련 3명 ▲유증상 검사자 2명 등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에는 광산구 소재 중학교와 북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이 각각 확진되면서 방역당국이 학생과 교직원 총 187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또 단풍철 야외활동 증가로 무등산 임시선별진료소가 설치·운영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1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 달 간 무

등산권세가지질공원센터 옆(동구 중심사길 71)에 설치된다.
무등산 임시선별진료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무등산 탐방객 중 검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남에서는 해남·보성·여수·구례·목포 등 5개 시·군에서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남 3298-3306번으로 분류됐다.
해남에서 발생한 4명(3299-3302-3303-3306번)은 기확진자의 접촉자다. 이 중 2명은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 3285번이 운영하는 양식장에서 일하는 외국

인 근로자로 파악됐으며, 나머지 2명(3299-3306번)은 해당 확진자의 지인이다. 이들은 최근 전남 3285번과 식사를 같이 해 실시한 검사에서 확진됐다.
구례에서 발생한 전남 3298번은 유증상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타지역 관련 확진자도 1명 추가됐다. 보성에서 확진된 전남 3300번은 용인 확진자의 가족으로, 최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2면에 계속 /오승지·임후성기자

이낙연 “경선 결과 수용”

“당무위 결정 존중...정권 재창출에 힘 보태겠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이 전 대표는 13일 당무위가 표 계산 방식에 대한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직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후보 사퇴자 투표의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그에 대한 당무위 결정은 존중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경선에서 승리하신 이재명 후보께 축하드립니다”면서 “저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당이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국민의 신임을 얻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동지 그 누구에 대해서도 모멸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래서는 승리할 수 없다. 우리가 단합할 때 국민은 우리를 더 안아 주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지지자들에게는 “지금 민주당의 위기이다. 위기 앞에 서로를 포용하고, 그 힘으로 승리했던 것이 민주당의 자랑스런 역사다”면서 “부디 저의 고심 어린 결정과 호소를 받아주시기를 간청한다. 여러분의 낙심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당무위 의결은 76명의 당무위원 중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한 15명을 포함해 총 64명이 합의·추인하는 방

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14명의 참석자가 발언 기회를 얻어 당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격론 끝에 특별당규 59조에 따라 사퇴한 후보의 득표를 모두 무효화한 당선관위 결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당무위는 이 조항이 결선투표 조건을 규정하는 조항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은 받아들여 사후에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회의 후 “함께 승리의 길로 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표결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합의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가 최종적으로 승복 선언을 함에 따라 경선 결과를 둘러싼 민주당의 내홍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지난 11일 대선 경선에서 사퇴한 후보가 얻은 표를 무효로 처리기로 한 당 선관위 결정이 잘못됐다면서 이의를 공식 제기했다. /김진수기자

Today	
파리인플루엔자 주의하세요	5면
최철의 문화살롱	14면
심석희 대한민국 체육상 '보류'	16면

제2회

광주매일신문

축제·관광

대상 공모

추제·관광대상 공모부문 및 시상

접수자격 자치단체 및 기관, 기업체, 단체, 협회, 개인 등

접수방법 광주매일신문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접수(707jhj@hanmail.net) 및 방문, 우편접수

접수기간 2021년 10월 12일(화) ~ 11월 19일(금) 도착 분 마감

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종합대상 ▶컨텐츠부문 우수 ▶숙박업부문 우수

▶MICE부문 우수 ▶여행업부문 우수 ▶특별상

미디어융복합을 선도하고 있는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는 축제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2회 광주매일신문 축제·관광대상'을 공모합니다.

코로나 19로 축제와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되었지만 온택트나 참신한 아이디어 등을 통해 주목을 받은 단체나 기관,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추천을 바랍니다.

주최·주관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GJTO 광주관광재단 전남관광재단**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 광주광역시관광협회